

견관절 전방불안정성에 대한 관절경적 치료 결과: 금속나사못 및 흡수성 나사못고정의 결과 비교

Outcome result after arthroscopic Repair of Anterior Shoulder Instability:
Comparison stuffy between metal anchor and biodegradable anchor fixation.

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최창혁 · 김신근 · 한보람 · 채승범

목 적

견관절 전방불안정성에 대해 금속나사못 및 흡수성 나사못고정을 이용한 관절경적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관절경적 전방관절순 수복술을 시행한 27례의 전방불안정성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평균 나이는 29세(범위:16~56) 였으며, 우측 팔이 17례(63%), 평균 추시기간은 12.5개월(범위: 12~14) 이었다. 기능평가는 한국견관절불안정성 평가척도(Korean Shoulder Score for Instability, KSSI), Rowe's Bankart Grading scale, ASES score 와 UCLA scores를 이용하였다.

결 과

금속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 시 기능 호전 정도는 KSSI, ASES, UCLA score 및 Rowe scale에서 각각 15.7(술 전 73.3, 술 후 1년 88.5), 14(술 전 83, 술 후 1년 97), 2.9(술 전 30.9, 술 후 1년 33.8), 19.7(술 전 73.3, 술 후 1년 93)이었다. 흡수성 나사못군의 기능 호전 정도는 KSSI, ASES, UCLA score, Rowe scale에서 각각 17.2(술 전 73, 술 후 1년 90.2), 13(술 전 83, 술 후 1년 96), 3.3(술 전 30.7, 술 후 1년 34), 18.3(술 전 74.5, 술 후 1년 92.8)이었다. 양군 모두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으며 호전 정도는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($p < .05$). 금속나사못군에서 각각 1례의 금속 돌출 및 외상성 재탈구가 있었다.

결 론

양군 모두 만족할 만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으며, 흡수성 나사못군의 경우 수술 시 및 술 후 발생 가능한 금속나사못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.